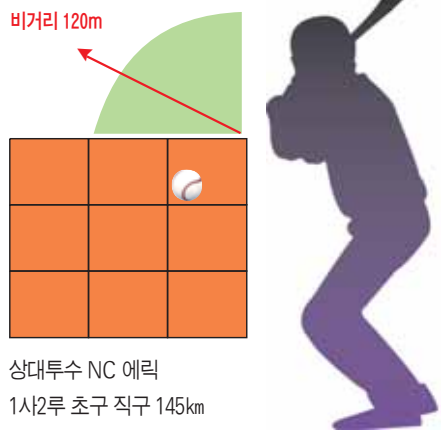


불지른 앤서니 '타이거즈 뒷문' 어찌할꼬

9회말 통탄의 동점 허용
연장 12회 접전끝 5-5
최희섭 연속 홈런 마감

●이범호 5회 투런



산대투수 NC 예력
1사2루 초구 직구 145km



4경기 연속 홈런 행진을 하고 있는 기아 최희섭이 24일 오후 창원 마산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NC-기아전에서 12회초 헛스윙으로 연속 홈런 기회를 아쉽게 날리고 있다. 기아 최희섭은 방망이에 불이 맞았다고 주장했으나 심판은 아웃을 선언했다. /연합뉴스

1위 '호랑이 군단'이 최하위 NC와의 첫 대결에서 힘겨운 무승부를 기록했다. KIA 타이거즈가 24일 창원마산구장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12회까지 가는 연장 접전에도 5-5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양팀은 13개의 안타와 에러를 하나씩 주고 받으며 무승부에 만족했다. KIA는 NC를 상대로 승리를 챙기지는 못했지만 1위 자리를 지켰다. 김선빈이 웃고 울었다. KIA는 4-4로 맞선 8회 김선빈의 역전타로 승리를 눈앞에 뒀지만, 마지막 수비에서 김선빈의 실책성 플레이로 주자를 내보낸 뒤 아웃카운트 하나를 남겨놓고 동점을 허용하면서 땅을 쳤다. 연장에 돌입한 양팀은 12회까지 점수를 내지 못하면서 무승부에 만족했다. 양쪽 선발이 일찍 무너지면서 경기는 혼전양상이었다. 1회 선두타자 김중호를 볼넷으로 내보낸 소사가 도루에 이어 2번 지석훈

에게 안타를 허용하며 불안한 출발을 했다. 우익수의 송구실책이 겹치면서 무사 2·3루, 권희동을 삼진으로 잡아냈지만 이호준의 유격수 앞 땅볼 때 3루 주자가 홈을 밟으면서 선취점을 내쳤다. KIA가 2회초 김상현의 안타와 차일목의 희생플라이로 1-1 동점에 성공했지만 3회말 소사가 다시 선두타자 김중호를 좌전안타로 출루시켰다. 지석훈의 2루타로 두 번째 점수를 내준 소사는 권희동의 희생플라이로 추가 실점을 기록했다. 4회에도 이상호에게 볼넷을 허용한 소사는 노진혁과 김태군에게 연속 안타를 맞은 뒤 무사 만루에서 박경태로 교체됐다. 김중호의 희생플라이가 나오면서 1-4. 4회까지 5개의 잔루를 남긴 KIA 타선이 5회 모처럼 집중력을 발휘했다. 토타자 이용규가 내야안타로 출루한 뒤 도루로 2루를 밟았다. 김선빈의 안타때 3루로 질주했던 이용규가 좌익수가 공을 빠트린 사이 홈에 들어오면서 2-4를 만들었다. 이어진 2사 2루에서 4번 이범호가 두 경기 연속 홈런을

날렸다. 이범호는 에릭의 초구를 공략해 좌측 담장을 넘기며 승부를 4-4 원점으로 되돌렸다. 홈런과 함께 NC 선발 에릭도 5회를 채우지 못하고 강판 되면서 불펜의 힘겨루기가 이어졌다. KIA가 5회 임준섭을 시작으로 유동훈·진해수·최항남을 내세웠고, NC도 고창성·노성호·이민호·이승호를 출격시키며 승리 지키키에 나섰다. 8회초 김선빈이 2사 1·2루에서 NC 마무리 김진성을 상대로 중견수 왼쪽에 떨어지는 1타점 적시타를 때리며 5-4의 역전극을 연출했다. 하지만 역전타의 주인공 김선빈이 9회 실책성 플레이로 고개를 숙였다. NC의 선두타자 마나길의 타구가 유격수 김선빈의 글러브를 맞고 뒤면서 내야안타가 됐다. 마무리 앤서니가 이호준·김중찬을 외야플라이로 잡아냈지만 아웃카운트 하나를 남겨놓고 조경호에게 1타점 2루타를 얻어맞으며 불펜세이브를 기록했다. 이후 양팀은 연장 12회까지 공격을 펼쳤

◇ 24일 마산구장

KIA	0	1	0	0	3	0	0	1	0	0	0	0	5
NC	1	0	2	1	0	0	0	0	1	0	0	0	5

■ 프로야구 종간순위 (4월 24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연속
1 KIA	16	11	4	1	0.733	1무
2 넥센	19	13	6	0	0.684	6승
3 삼성	16	10	6	0	0.625	2승
4 두산	16	9	6	1	0.600	2패
5 LG	17	10	7	0	0.588	1패
6 롯데	16	7	8	1	0.467	1승
7 SK	17	7	10	0	0.412	3패
8 한화	18	4	14	0	0.222	1승
9 NC	17	3	13	1	0.188	1무

지만 추가 점수를 내지 못하면서 역사적인 첫 대결을 5-5 무승부로 끝냈다. 10회부터 KIA 마운드를 책임진 이대환은 3이닝 1피안타 1볼넷 1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로 팀의 패배를 막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동성고, 선배들 지원 속 왕중왕 도전

'유구회' 피칭 머신 선물
동성고가 선배들의 든든한 지원 속에 왕중왕을 위한 도전에 나선다. 얼마 전 동성고 야구부에 뜻깊은 선물이 도착했다. 동성고 출신 야구인들의 모임인 '유구회'에서 1000만원 상당의 피칭 머신을 선물한 것이다. 유은하원 야구인들의 모임이라는 뜻의 '유구회'는 고천주 송원대 감독(38회)을 회장으로 해 이근 광주시야구협회 경기이사(39회), 김준희 KBO 심판위원(46회), 서석초 양윤희 감독(48회) 등이 활동하고 있다. 15년 전부터 자리를 가졌던 이들은 심사 일반 모은 회비를 가까이 후배들을 위해 내어 놓았다. '유구회' 회원인 박병석 광주시야구협회 전무이사(36회)는 "후배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하다가 피칭 머신이 없다고 해서 선물을 하게 됐다. 후배들이 잘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선배들이 흔쾌히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선배들의 든든한 선물과 함께 '막판 뒤집기'로 왕중왕전 티켓까지 거머쥐면서 동성고 덕아웃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다. 동성고는 모교팀 지휘봉을 잡은 김재덕 감독을 필두로 김희상 야수 코치, 김재현 투수 코치로 코칭스태프를 꾸리고 올 시즌 새로운 출발을 했다. 하지만 군산상고·효천고와의 1·2주차 경기에서 10회 연장 승부처기 끝에 패를 당하는 등 등 초반 1승3패를 기록했다. 탈락 위기에서 화순고를 6-1로 꺾으며 3연승에 성공한 동성고는 동물(4승3패)의 진흥고를 승자승으로 따돌리고 극적으로 왕중왕전 티켓을 획득했다. 김재덕 감독은 "1승3패에서 이룬 결과라 선수들의 자신감이 많이 불었다. 마운드도 경기를 거듭하면서 안정됐고, 클린업 트리는 어느 팀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은 파워를 가지고 있다. 4강을 넘어야 우승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1차 목표를 4강으로 잡았



막강 중심타선과 마운드의 상승세로 극적으로 왕중왕전 티켓을 거머쥔 동성고 선수들의 든든한 지원 속에 4강 도전에 나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다"고 말했다. 부상으로 고전했던 에이스 박규민이 전반기 최종전에서 7.1이닝 무실점 12K의 호투를 하는 등 제 페이스를 찾아가고 있고, 안정된 컨트롤의 2학년 우안 방건우와 1학년 '잠수함' 김홍빈이 마운드에 버티고 있다. 3번 이대환을 시작으로 김태선·김민혁·박고훈으로 이어지는 폭발력 있는 중심 타선은 동성고의 핵심 전력이다. 토타자 역할을 수행하는 주장 이재무의 타격센스도 좋

영화배우 이시영

“나는 국가대표 복서다”

2013 복싱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결승경기가 24일 충북 충주체육관에서 열린 가운데 여자 일반 -48kg급에 출전한 이시영(인천이) 김다솜(수원)에게 승리를 거두고 링을 걸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짜릿한 역전승으로 태극마크

배우 이시영(31·인천시청)이 여자 복싱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짜릿한 역전승으로 태극마크를 달았다. 그러나 이시영은 24일 충북 충주시 충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3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김다솜(19·수원 태릉체육

관)을 22-20 판정으로 꺾었다. 이시영은 2라운드까지 상대의 저돌적인 인파이팅에 고전하며 7-9로 밀렸다. 그러나 이시영은 긴 리치를 바탕으로 한 오른손 잭과 적중률 높은 왼손 스트레이트를 적절히 활용해 역전승을 일궈냈다. /연합뉴스

추신수 ML 유일의 5할대 출루율

3안타 1볼넷 0.535
33경기 연속 출루행진
'출루 기계'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가 안타 3개와 볼넷 1개를 보태 연속 경기 출루 기록을 '33'으로 늘렸다. 추신수는 24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볼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시카고 컵스와 홈경기에서 1번 타자 중견수로 출전해 4타수 3안타를 때리고 타율을 0.387로 끌어올렸다. 그는 1-2로 끌려가던 9회 선두 타자로 나와 볼넷으로 걸어나갔고 조이 보토의 적시타 때 홈을 밟아 귀중한 동점 득점을 올렸다. 연장 10회 좌전 안타를 때리는 등 4차례나 누상에 나간 추신수는 출루율을 0.521에서 0.535로 높였다.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전체 타자 중 출루

율 5할이 넘는 선수는 이날까지 추신수뿐이다. 추신수는 최근 4경기에서 경기당 평균 3회 이상 출루하며 득점의 물꼬를 트는 데 앞장섰다. 전날 무안타에서 벗어나 하루 만에 안타 2개를 친 그는 시즌 11번째 멀티히트를 작성하고 작년 막판 13경기를 포함해 33경기 연속 출루 행진도 이어갔다. 추신수의 방망이는 1회부터 날카롭게 들었다. 볼 카운트 2볼에서 카를로스 비야누에 바가 던진 바깥쪽 직구를 갈래로 밀어 유격수 옆을 꿰뚫는 안타를 날렸다. 6회 2사 후에는 1루수 쪽 내야안타로 다시 1루를 밟았다. 1-2로 끌려가던 9회말 추신수는 볼넷을 골라 고른 뒤 홈을 밟아 2-2 극적인 동점을 이뤘고, 2-4로 뒤진 연장 10회말 1사 1루에 들어선 추신수는 바깥쪽 변화구를 밀어 3루수 옆을 관통하는 안타를 쳤다. 신시내티는 연장 10회 컵스에 2점을 헌납하고 결국 2-4로 무릎을 꿇었다. /연합뉴스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